

쇼츠와 릴스에 대한 규제

우리는 현대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유튜브와 같은 영상매체와 인스타 같은 SNS를 사용하며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또 이것을 짧게 잘라 게시하는 릴스와 쇼츠가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과 게시물에 중독되어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되는 도파민 중독에 걸리게 된다. 도파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집중력이 저하되고 삶의 루틴이 무너져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준다.

필자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 리서치에 따르면 숏폼 콘텐츠 설문결과의 부정적인 응답 중에 첫 번째로 '전체 맥락보다 결과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응답이 63%로 가장 높았다. 짧은 시간 안에 내용을 담기 위해 흥미와 이목을 끌 수 있는 구성을 하다 보니 스토리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세 번째로 '부정확한 정보가 많다'(61%) '자극적인 영상이 많다'(60%) 등의 순으로 숏폼 콘텐츠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설문결과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대부분의 부정적인 특성에 대해 타 연령층 대비 높은 동의 비율을 보였고 특히 18세~29세 응답자의 경우 '결과 중심', '부정확한 정보 많음', '자극적인 영상 많음' 등의 특성에 더욱 동의했다.

숏폼 콘텐츠 시청자 중 유해한 콘텐츠를 접촉한 경험이 있으나 유익한 콘텐츠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10%에 그쳤다. 반대로, 유익한 콘텐츠를 접촉한 경험은 있으나 유해한 콘텐츠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22%로 두 배가 넘었다. 실제 이용자들은 숏폼 콘텐츠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강하게 체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숏폼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성적이거나 잔인한 내용의 유해한 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는 의견이 52%로 절반정도 되었다. 이런 영상이 청소년에게 노출되면 이런 영상이 일상적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고 따라할 수도 있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만약 숏폼 콘텐츠를 규제한다면 어떤 대상을 규제해야 할까? 콘텐츠 제작자(생산자)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64%로 가장 높았으며 플랫폼에 대한 규제 또한 51%로 높았다. 반면 시청자에 대한 규제 응답은 16%에 그쳤다. 특히 숏폼 콘텐츠를 시청해 본 응답자의 경우 숏폼 제작자(생산자)에 대한 규제 목소리(69%)가 숏폼 미시청자(50%) 대비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숏폼 콘텐츠 제작자 규제 방안으로는 '영상 신고 누적 시 제재' 응답이 68%로 가장 높았으며 '제작 시 별도의 교육 영상 시청 의무화'(32%) '제작 개수 제한'(31%)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숏폼 시청 경험자들은 '영상 신고 누적 시 제재' 응답이 75%로 다른 규제 방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시 말해 '숏폼 제작 개수 제한' 또는 '의무 교육 영상 시청'처럼 문제 발생 이전에 규제하기보다는 문제 발생 이후 사후 조치로 규제하는 방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숏폼 콘텐츠 플랫폼 규제 방안으로는 '민간 자율 규제'(51%) 응답과 '중앙 정부의 규제'(50%) 응답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숏폼 시청자(소비자) 규제 방안으로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71%)이 '시청 연령대 규제'에 응답했다.

짧고 간결한 형태의 숏폼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짧은 분량으로 인한 낮은 시청 부담과 편리한 접근성 등은 앞으로도 계층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이용

자들에게 지속적인 소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확인한 섹션 콘텐츠가 지닌 양면성은 이에 대한 경각심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저연령층이 섹션 콘텐츠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만큼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규제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뒤 그것을 수습해 나가는 방식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 한국일보(<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112309120000959>)